

정영철 박사 「정 P&C연구소」 설립

최신 양돈기술 개발·도입·보급 계획



정영철 정 P&C연구소장

— 홍 보 부 —

돼지 육종 및 양돈경영 전문가인 전 (주)선진기술연구소장 정영철박사가 지난 10월 24일 “정 P&C연구소”를 설립했다.

중소규모 농장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새로운 기술과 최신정보의 습득이 전문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 연구소는 대규모 농장은 물론, 중소규모 농장들의 단지에도 전문기술을 자문할 계획이어서 양돈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 전문기술도 이제는 소, 돼지, 닭 등 축종별로, 또 경영, 영양, 육종, 시설 등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져야 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어떻게 자기의 실정에 알맞게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같은 전문 연구소의 출현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영철박사는 “한국 양돈산업의 현실은 과감한 구조개편과 생산자들의 발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연구소에서는 양돈업 및 종돈업계의 정책개발, 신기술개발과 도입에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양돈산업의 국제화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P&C연구소”는 앞으로 ▲ 종돈장의 육종 프로그램 수립과 추진 ▲ 양돈장의 경영진단 ▲ 기술지도 ▲ 계열화사업의 브랜드 돈육개발 사업 ▲ 시장분석과 전망 ▲ 신기술 개발 ▲ 해외 신기술과 정보 개발 전달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정영철박사(47세)는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한후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가축육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정박사는 자연농원 양돈장 설립 초창기부터 10년간 자연농원 양돈사업부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 (주)선진 양돈사업본부 본부장겸 전무이사, 유전자원(주) 대표이사, (주)선진 기술연구소장으로 16년간을 양돈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국내 양돈업계에서 명실상부하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통실력자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정 P&C연구소” 명칭중 “P&C”는 Producer(생산자)와 Consumer(소비자)의 약자이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6-6 (기영빌딩 403호)

□ 전화 : (02)599-8113~4

□ 팩스 : (02)594-0296